

안순일 교육감, 자원봉사활동 단체 대상 격려

광주 광산구서 경제 강연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국자원봉사활동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석산고 구회인 교장과 학부모 지도봉사단 김혜정 단장을 격려했다. (시교육청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린공원 나무심기 봉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조보하)는 지난 21일 '나눔의 토요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광양시 미동 근린공원에서 철쭉·피라칸사스 등 5천주의 나무를 심었다. /광양=김철호기자 chkim@



"반성합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광주전자공고, 학부모 설명회 화제

광주지역 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자기 고백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화제다. 광주전자공고는 지난 14일 학교 대강당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학년도 학교운영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올 한해 학교 운영 계획 설명에 이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측은 특히 그동안 급기시대는 학생들의 일탈 행동 사례 등을 포함해 학교 운영 전반 결건 '투명한' 설명회를 열었고, 이에 학부모들도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함께 협조를 약속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 김선희씨는 "교과·생활지도 방식과 진로 방향 등에 대해 가감없이 상세히 설명해 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다"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고 만족해 했다. 이 학교 김성영 교장은 "성과만 늘어놓는 설명회는 학부모와 교감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학부모들의 진솔한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면서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교육 성과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이계열(전 부문여교 교장)·문경남씨 차남 창법군 조성현(형송건설·도곡스타랜드대표)·이매자씨 장녀 화숙양=28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중친회: ▲경주정씨 목포지구 중친회(회장 정학균) 월례회의=23일(월) 오후 6시30분 조공식당. 061-244-2343. ▲고령선씨 전남서부·광주중회(회장 신란식) 임시총회=28일(토) 오전 10시30분 광덕고등학교 2층 회의실. 011-9625-9988. ▲광산김씨 화순군 중친회(회장 김용덕) 정기총회=28일(토) 오전 11시 화순군 우체국 3층 회의실.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회귀화해 전사회=3월31일까지 광주우체국 1층로비, 3월10일~4월10일까지 남광주역 역무실 앞. 011-604-6132. ▲승선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시 등) 관련 전자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지금은 설부른 투자보다 지키는 게 좋아"

“美 무차별 달러 발행 ‘헬리콥터 머니론’ 경계를”
“대장급 대장 건강에 대한 강도도 생각보다 잘하는데 아직까지 강의 요청이 없어 아쉽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 시골의사 박경철원장의 말에 회의실을 가득 채운 700여명의 청중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유명하지만 자신의 본업은 대장항문 전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유머였다. 박 원장의 이날 강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하반기 국내경제의 회복 여부였다. 그는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GDP대비 부채 비율을 근거로 미국은 이미 신용불량자, 일본은 파산자 신세와 같다고 지적했고 한국은 부채 비율이 35%로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로마시대 ‘데나리우스’ 은화의 은 함량이 96%에서 4%까지 떨어지면서 세계 최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를 예로들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가 달러를 찍어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국채를 매입하는 일명 ‘헬리콥터 머니론’을 경계했다.
경기전망에 대한 어리석은 논쟁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경기회복 여부는 해외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은 설부른 투자보다 지키라고 말했다.
“IMF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 교훈은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 교훈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학습효과를 심어준 점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을 기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은 글로벌 위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 원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면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며 “그때를 대비해 우선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 손잡고 돕는 상존(相存)이 절실하다”고 강의를 마쳤다.
안동으로 출발하려는 박 원장과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언론과의 ‘미스 매치(Miss Match)’ 때문에 인터뷰 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10월이후 처음이었다.
1년에 300~400회 강연을 한다는 그는 호남에 오면 청중들의 피드백이 좋아 언제나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스타강사·칼럼리스트·의사 등 많은 직함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적성에 맞는지는 질문에 “한우물을 파야 하는데 과분하게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 시종의 평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자세를 낮췄다.
박 원장은 “사회적 성취를 개인의 능력보다는 혜택을 입은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의 강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나눔을 통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호남 학생 지역 이끌 일꾼으로 키워 드리겠습니다"

‘호남 여성인재 육성 선언식’ 來光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지역에서 좋은 학생을 보내주시면 반드시 여성 핵심인재로 키워 다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지난 20일 열린 ‘호남 여성인재 육성 선언식’을 가진 한영실(53)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2010학년도부터 전국의 여성 핵심인재를 숙명여대와 지역이 동시에 육성하기 위한 ‘지역핵심인재전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와 숙명여대 광주·전주지회 동문회 주최로 열린 ‘호남 여성인재 육성 선언식’에는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주 지역 5개 구청장과 강인영 순창군수 등이 대학과 협약을 맺은 호남지역 6개 자치단체장, 고교 교장, 진학담당 교사, 학부모,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숙명여대가 새롭게 신설한 ‘지역핵심인재전형’은 숙대와 협약을 맺은 기초자치단체 내의 고교 학교장이 학생 1명을 단체장에게 추천하고, 단체장이 다시 이 학생을 대학에 추천할 경우 입학사정관이 심사해 확정하는 제도다.
한영실 총장은 “지역핵심인재전형은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고루 발굴·육성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교육적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는 균형적 인재육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인재육성 선언식을 광주에서 가장 먼저 개최한 것은 호남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많은 여성 인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또 “타 대학의 지역선발전형이 우수한 학생 선발에만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숙명여대의 지역핵심인재전형은 선발은 물론 선발한 인재를 리더로 육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교육적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광주에서 시작된 여성인재 육성 선언식은 오는 4월22일 영남지역에서 개최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 맞춤양복디자이너 전병원씨 패션브랜드 대상
등이 후원하는 2009년 패션브랜드 대회에서 전씨는 창의적 디자인브랜드 경영과 패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씨는 한국 남성복 기술 경진대회 창작부문 최우수상, 국가 양복기술자 격시열 심사위원, 한국 복자기술회 광주지부장을 역임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와세다대학 교류 방일
전호중 조산대 총장은 와세다대학 졸업식 참석과 교류방안 협의를 위해 23일부터 26일 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인사
◇광주지방경찰청(총경급)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황호선
▲지방청 경무과장 최정환 ▲지방청
보안과장 김수을 ▲동부서장 김진희 ▲남부서장 박재현 ▲북부서장 이운
◇전남지방경찰청
▲지방청 홍보담당관 노병현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김두만 ▲지방청 경무과장 박봉기 ▲지방청 경비교통과장 양성진 ▲지방청 보안과장 김대식 ▲여수서장 양승규 ▲순천서장 김장완 ▲장흥서장 박생수 ▲영광서장 강성공 ▲함평서장 박찬홍 ▲영암서장 김재병 ▲강진서장 배영철 ▲담양서장 안병갑 ▲완도서장 김재석 ▲무안서장 문준호 ▲구례서장 김평재
서양화가 김점선씨 별세
말과 오리 등 자연을 소재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였던 서양화가 김점선씨가 22일 오전 지방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김씨는 자서전 ‘점선단’ ‘숨은 신’ 등 10여권의 저서도 남겼다. /오광록기자 kroh@

- 시간 10~12시(월~금). 062-251-0925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서, 현장답사 직장인 스테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화·목 오전 10~12시. 대상은 어르신 20명(선착순). 062-234-0074, 062-232-6131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식사·운동·명상) 강좌 추가 모집=3월3일~6월8일(15주) 매주 화요일. 주간반 10시~12시 야간반 오후 7시~9시. 010-6271-8475, 062-230-7700~2.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딩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생활체육 불림교실 여성부기 초반모집=무료, 선착순 20명, 수강
▲유정임씨 별세 정현수·명수·인업·윤자·형숙씨 모친상=발인 23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382
▲나승초씨 별세 정주·용주·병주·영주·덕주(빛고을예술봉사단 단장)·량주씨 부친상 김후인(자영업)·김준호씨 빙부상=발인 23일(월) 남도장례식장. 062-223-7715
▲강애순씨 별세 신상호·상철·상희·영연·미애·미자·미복씨 모친상=발인 24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381
▲박미덕씨 별세 신영록·광욱·태욱·정욱·희숙·정숙·민희씨 모친상=발인 24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박정자씨 별세 김중필·영미·자옥씨 모친상=발인 24일(화)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김필환씨 별세 기영(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기환(기독교 대학 감리회 목사)씨 부친상 정종찬(코스모스산업 대표이사)씨 빙부상=발인 24일(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02-2030-7912
▲박대유(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장)씨 별세 광열(전 법무부 과장)씨 부친상 김동진(포스코 중국총괄사장)·문광명(개인사업)·최준기(개인사업)·한명길(소아과 원장)씨 빙부상=발인 24일(화) 상무병원 장례식장. 062-600-7400

대한민국 최초 프리드 선진국형 정화시스템 현대중합상조 1688-3740